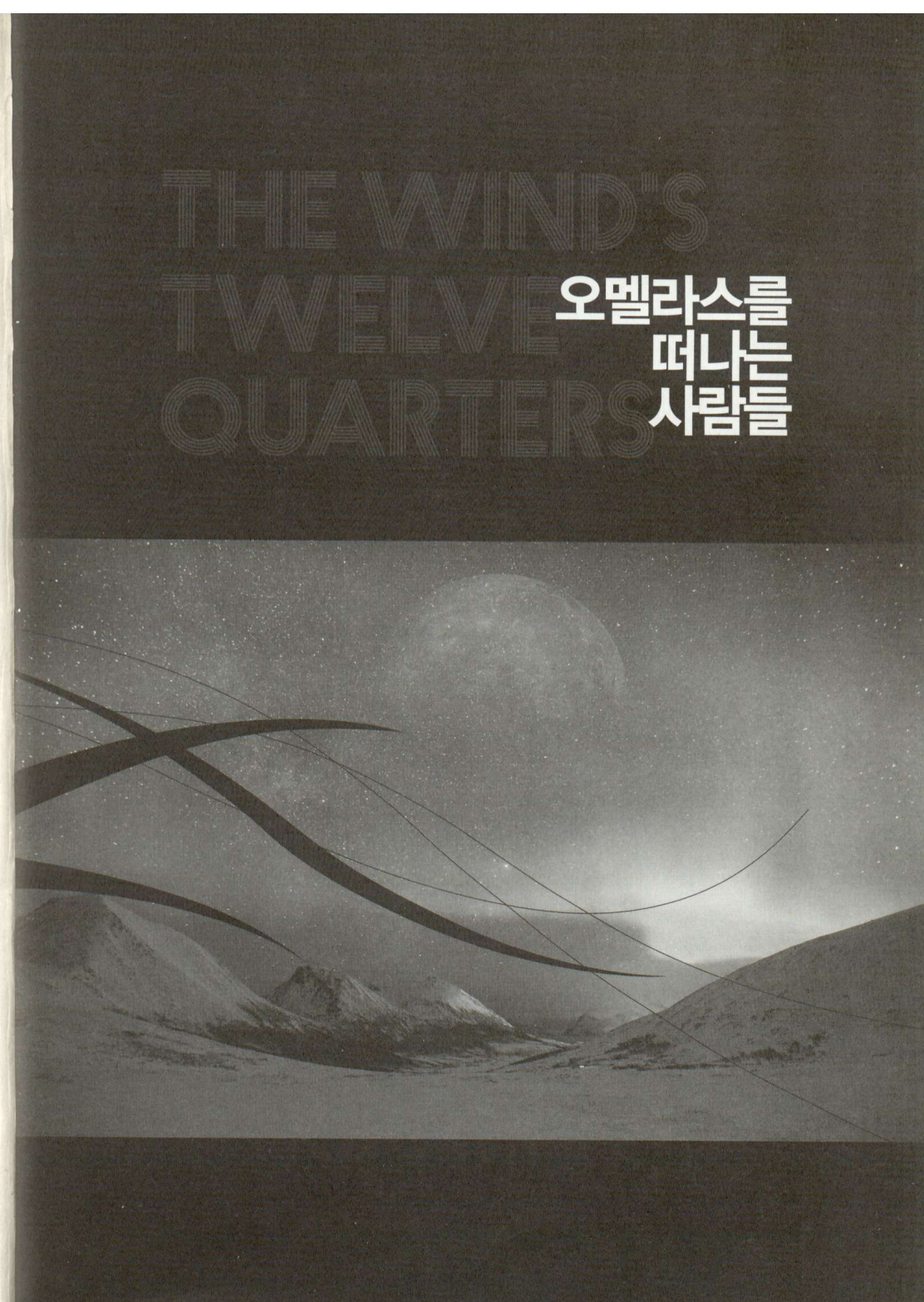


임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나에게 살인하는 것 말고 죽음의 역할까지 맡기는 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 있는 생명체다. 나는 생명의 한계가 있는 존재다.

만약 세상에 죽음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존재를 위해 영원의 역할은 하지 않으리라. 그런 존재들이 나무를 죽음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라. 만약 그런 존재들이 보고 싶은 것이 죽음이라면,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죽음을 보게 하라.



(윌리엄 제임스 주제에 대한 변주)

이 심리신화의 중심 개념인 '속죄양'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것으로, 몇몇 사람들은 왜 이 글을 윌리엄 제임스에게 돌렸는지 (다소 의심스러운 투로) 묻곤 했다. 사실, 나는 도스토옙스키를 무척 좋아하지만 스물다섯 살 이후로 그의 글을 다시는 읽지 못했고, 도스토옙스키가 '속죄양'이라는 개념으로 글을 썼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지만 제임스가 쓴 《도덕적 철학자와 도덕적 삶》이라는 글을 읽었을 때 나는 서늘한 인식의 충격을 받았다. 다음은 내가 읽고 충격받은 제임스의 글이다.

“또는 푸리에, 벨라미, 모리스가 생각했던 낙원을 능가하는 낙원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그리고 어느 외딴 곳에서 길 잃은 한 영혼만 고통을 당한다면 그 낙원에 있는 수백만 명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설사 그런 식으로 제공되는 행복을 붙잡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래의 열매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여 얻은 행복이 얼마나 추잡한가를 스스로가 명확히 느끼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미국인이 처한 양심의 딜레마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 도스토옙스키는 위대한 예술가이자 급진적 인물이었지만, 도스토옙스키 초기의 사회 급진론은 거꾸로 그를 격렬한 반동으로 만들었다. 반대로 아주 유순하고 친진난만할 정도로 세련되어 보이는(자신의 글을 읽는 모든 독자가 자신처럼 우아하리라 생각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라!) 미국인 제임스는 진정으로 급진적 사상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길 잃은 영혼”이 나오는 단락 바로 다음에 제임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더 높은 곳을 지향하며 더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이상은 모두 혁명적이다. 이러한 이상은, 과거 경험의 경과로 위장해서 나타나기보다는 미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금껏 우리를 가르쳐온 환경과 교훈은 배우고 굴복해야 할 요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 SF에, 미래에 대한 모든 사고에 이 두 문장을 적용하는 것은 거칠 것이 없다. “미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으로서의 이상. 이 얼마나 섬세하고 고무적인 표현이란 말인가!

물론, 내가 제임스의 글을 읽은 후 바로 앉아서 “자 이제 길 잃은 영혼에 대한 글을 써야겠군”이라고 말한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쉽게 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나는 자리 잡고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고(그냥 그러고 싶었다), 당시 내 머릿속에는 ‘오멜라스’라는 단어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오멜라스’는 도로 표지판에서 빌려온 단어로, ‘살렘(오리건)Salem(Oregon)’을 거꾸로 읽은 것이다. 여러분도 도로 표지판을 거꾸로 읽어본 적이 있는가. 지정, 행서, 앞교학, 코스시란프센……. 살렘은 셀로모, 살람, 평화와 같은 뜻이다. 멜라스, 오 멜라스, 오멜라스, 음 엘라스. * “르 킨 작가님, 당신은 어디에서 글의 소재를 얻습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까맣게 잊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과 도로 표지판을 거꾸로 읽으며 얻는다. 그 밖에 달리 어디가 있겠는가?

* ‘아아, 인간이여’라는 뜻의 프랑스어.

요란한 종소리에 제비들이 높이 날아오르면서, 바닷가에 눈부시게 우뚝 선 도시 오멜라스의 여름 축제는 시작되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의 삭구에는 깃발이 나부꼈다. 빨간 지붕에 울긋불긋한 담으로 단장한 집들과, 이끼가 곱게 깔린 오래된 정원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그리고 가로수 아래로 나 있는 길을 따라, 넓은 공원과 공공건물들을 지나 축제 행렬이 나아갔다. 뺏뺏하고 긴 자주색이나 회색 가운을 걸친 노인들, 엄숙한 표정의 장인들, 갓난아이를 안은 채 명랑한 표정으로 조용히 속삭이며 걷는 여인네들로 이루어진 행렬은 점잖은 편에 속했다. 또 다른 거리에서는 징과 탬버린 소리가 뒤섞인 음악이 더 빠른 박자로 들려왔고, 그 음악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며 나아갔다. 행렬 자체가 춤이었다. 음악과 노랫소리를 꿰뚫고 제비가 날아오르듯 아

이들은 높은 소리로 외쳐대면서 행렬을 해집고 돌아다녔다. 모든 축제 행렬은 도시의 북쪽, 사람들이 '푸른 들판'이라고 부르는 축축하게 물기에 젖은 곳으로 향했다. 그곳의 넓은 풀밭에서는 환한 햇살 아래 벌거벗은 아이들이 진흙투성이 맨발이었고, 길고 유연한 팔로 경주에 앞서 들뜬 말들을 애써 달래고 있었다. 말에는 안장도 재갈도 없이 고삐뿐이었다. 갈기는 은실, 금실, 녹색 실로 땅여 있었다. 말들은 코를 킁킁거리고 경충대며 서로 위세를 뽐냈다. 동물 가운데 오직 말들만이 사람들의 축제가 자신들의 것인 양 아주 흥분해 있었다. 멀리 북쪽과 서쪽으로 산 봉우리들이 바다의 만 쪽에 위치한 오멜라스를 반쯤 감싼 채 솟아 있었다. 아침 공기가 너무 맑아 '열여덟 봉우리' 꼭대기에 아직까지 쌓여 있는 눈이 질푸른 하늘 아래 햇빛을 받으며 몇 마일에 걸쳐 백금처럼 타올랐다. 바람은 알맞아서, 경마 코스를 따라 꽃아놓은 깃발들이 이따금씩 필력이는 정도였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의 고요함 속에서, 멀어지는 듯 가까워지는 듯 다가오며 때때로 몸을 떨고 하나로 모여들었다가 다시 울려 퍼지는 즐거운 종소리가 도시를 휘감고 지나며 달콤한 음악이 되어 들려왔다.

즐거워라! 그 누가 이런 즐거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가 오멜라스 주민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오멜라스의 주민들은 행복하긴 했지만 멍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오멜라스의 주민들에게 그리 크게 환호하지 않는다. 모든 웃음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 속의 주인공

공이 되었다. 오멜라스에 대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은 선입관을 갖는 경향이 있다. 멋진 종마 위에 올라타 고귀한 기사들에 둘러싸여 있거나 혹은 근육질의 노예들이 둘러멘 황금 가마에 앉은 왕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오멜라스에는 왕이 없었다. 칼을 휘두르지도 노예를 부리지도 않았다. 오멜라스 주민들은 야만인이 아니었다. 내가 오멜라스의 법과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멜라스 같은 곳은 유례없이 적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주제나 노예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멜라스에는 주식 시장이나 광고, 비밀경찰, 폭탄도 없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오멜라스 주민들은 멍청하지 않았고 즐거운 양치기도 아니었으며 고결한 야만인도 맥 빠진 몽상가도 아니었다. 오멜라스 주민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보다 절대로 더 단순하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현학자와 퀘변가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행복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점이다. 오직 고통만이 지적인 것이며 재미있는 것은 모두 악이라고 여기는 것에 있다. 이런 관점은 예술가들의 배신 행위 때문이다. 악의 평범함과 고통의 끔찍한 권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일 뿐이다. 이길 수 없으면 한편이 되어라! 고통스럽다면 반복하라! 그러나 절망을 찬양하는 행위는 기쁨을 비난하는 행위이며, 폭력을 용인하는 행위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행위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행복한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할 수 없으며 즐거움을 축복할 수도 없다. 내가 어떻게 오멜라스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늘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오멜라스 사람들은 순진하거나 행복한 어린아이들이 아니다. 물론 그곳의 아이들은 행복하게 지내지만 말이다. 오멜라스 사람들은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숙하고 지적이며 열성적인 어른이다. 오, 기적이로다! 하지만 아아, 내가 그런 경이로움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말하느라 오멜라스가 여러분에게는 아주 오랜 옛날, 머나먼 곳에 있었던 동화 속 도시처럼 느껴질 게 분명하리라. 어쩌면 나름대로 각자의 상상에 따라 그곳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로서도 여러분 모두를 일일이 만족시킬 만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오멜라스의 거리에는 자동차나 헬리콥터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오멜라스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행복이란,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롭지도 않은 것, 그리고 해롭기만 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두 번째 항목, 즉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롭지도 않은 많은 것들, 다시 말해서 안락함, 호화로움, 풍요로움 따위가 포함되는 항목의 물건, 즉 중앙난방, 지하철, 세탁기 그리고 그 밖에 아직 발명하지 못한 굉장한 기구들, 이를테면 공중에 떠다니는 조명등이나 영구 동력 기관, 우리가 흔히 앓는 감기의 치료제 따위를 오멜라스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면 된다. 해안 근처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마을 사람들이 무척이나 빠른 조그만 열차 혹은 2층 전차를 타고 축제 며칠 전부터 오멜라스에 몰려들었으며, 오멜라스의 기차역은 비록 거대한 노천시장보다는 평범하지만 시내에서 가장 멋진 건물이라고 생각한다. 기차는 그렇다 치고, 오멜라스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만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도덕 군자인 양하는 몇몇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웃음, 종소리, 행진, 경주마,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만약 원한다면 흥청망청하는 잔치를 덧붙여서 생각해도 좋으리라. 흥청거리는 잔치를 떠올려 오멜라스를 눈앞에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기를. 그렇다고 이미 반쯤 황홀경에 취한 전라의 아름다운 남녀 사제들이 거룩한 피의 신성과 하나 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연인이든 낯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아무하고나 마구 관계를 맺으려 드는 사원을 연상하지는 말자.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는 했지만 말이다. 오멜라스에는 사원이 없다고 하는 편이, 적어도 사람이 있는 사원은 없다고 하는 편이 나으리라. 종교는 있지만 사제는 없다고 생각하자. 물론 굶주린 이들에게 맛있는 수플레를 주듯 자신의 아름다운 나체를 육체의 쾌락을 좇아 돌아다니는 이에게 즐거움으로 제공하면서 거닐 수도 있으리라. 그자들도 행렬에 참여케 하자. 성행위 중인 이들의 몸뚱이 위에서 탬버린을 치고 징을 울려 욕정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런 황홀한 의식 끝에 태어난 후손들을 모두 사랑하고 돌봐주도록 하자(이는 결

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오멜라스 사람들 가운데 죄인은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그 외에 오멜라스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처음에 나는 오멜라스에는 마약이 없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청교도적인 사고였다. 마약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도시의 거리 어디서든지 희미하지만 은은하게 감도는 ‘드루즈’의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라. ‘드루즈’는 처음엔 마음과 몸을 맑고 가볍게 해주고, 이어서 몇 시간 동안 꿈꾸는 듯한 나른함을 안겨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섹스의 쾌락과 함께 마침내는 깊은 우주의 신비와 비밀을 담은 황홀경을 선사한다. 게다가 ‘드루즈’는 중독성도 없다. 좀 더 소박한 취향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오멜라스에는 맥주도 있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 밖에 무엇이, 이 즐거운 도시에 그 밖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물론 전투에서 얻은 승리의 쾌감, 용맹스러움에 대한 축하를 떠올릴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성직자 없이도 잘살 수 있듯이, 우리는 군인 없이도 잘살아갈 수 있다. 무참한 학살을 통해 얻는 즐거움은 올바른 즐거움일 수 없으며, 그런 식으로 얻는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공포일 뿐이다. 설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미미한 것이리라. 한 없이 크나큰 만족감과 고결한 위업은 바깥의 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있는 가장 고결하고 공명정대한 영혼들과, 그리고 세상의 빛나는 여름과의 교감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멜라스 사람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것이며, 오멜라스 사람들이 축하하는 승리는 인생에 대한 승리다. 내가

생각하기에, 오멜라스 사람들 상당수는 ‘드루즈’가 필요 없으리라 본다.

이제 행렬 대부분이 ‘푸른 들판’에 도착했다. 음식을 나눠주는 빨간 천막과 파란 천막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져 나온다. 자그마한 아이들 얼굴에는 끈적끈적한 사탕 부스러기가 묻어 있고, 맘씨 좋게 생긴 사내의 회색 수염에는 맛 좋은 파이 부스러기가 묻어 있다. 청년과 아가씨들은 각자 말에 올라타서는 무리를 지어 출발선에 정렬한다. 작고 뚱뚱한 한 노파는 활짝 웃으며 바구니에서 꽃 한 송이씩을 꺼내 나눠주고, 흰칠한 키의 젊은이들은 그 꽃을 윤기 흐르는 머리털에 꽂는다. 모여 있는 사람들의 한쪽 끝에는 아홉이나 열 살쯤 된 듯한 아이가 혼자 앉아 나무 피리를 분다. 사람들은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고 빙그레 웃음 짓지만 아무도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지는 않는다. 씬 없이 연주하는 아이는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는 달콤하고 여린 선율의 마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연주를 마치고 피리 든 손을 천천히 내린다.

아이가 펼친 혼자만의 작은 침묵이 신호인 양, 출발선 가까이 있는 관람석에서 오만하며 애조를 띤 우렁찬 나팔 소리가 한 꺼번에 울려 퍼진다. 말들은 늘씬한 뒷다리로 뛰어오르고, 몇몇은 울음소리로 나팔 소리에 답한다. 기수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말의 목덜미를 토닥이고 달래면서 속삭인다. “진정해야지, 진정해, 예쁜아, 나의 희망아…….” 기수들은 출발선에 나란히 정렬하기 시작한다. 경주로를 따라 몰려든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

는, 들판 가득한 풀이나 꽃처럼 보인다. 마침내 ‘여름 축제’가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내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는가? 축제, 도시 그리고 온갖 즐거움에 관한 내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기로 하자.

오멜라스의 아름다운 공공건물들 중 하나에 지하실 방이 있다. 아니 어느 널따란 개인 저택의 지하실일 수도 있다. 그 방에는 굳게 잠긴 문이 하나 있을 뿐 창문도 없다. 거미줄 처진 지하실 창문으로 비치는 한 줄기 희미한 빛이 그 방 널빤지 벽의 갈라진 틈으로 먼지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들어올 뿐이다. 그 작은 방 한쪽 구석에는 덩어리지고 엉킨 채 딱딱하게 굳어 악취를 풍기는 대걸레 두 자루가 서 있고, 그 옆에는 녹슨 양동이 하나가 놓여 있다. 바닥은 지저분하고 습기가 차 축축한 것이 여느 지하실 창고와 다를 바 없다. 가로로 두 걸음, 세로로 세 걸음 정도인 그 방은 청소 도구들을 넣어두는 벽장이나 쓰지 않는 연장을 처박아두는 창고에 불과하다. 그 방에 어린아이 한 명이 앉아 있다. 남자아이일 수도 있고 여자아이일 수도 있다. 걸모습으로는 여섯 살쯤 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열 살쯤 되었다. 그 아이는 정신박약이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포와 영양실조,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아이는 녹슨 양동이와 대걸레 반대편에 구부정하게 앉아 이따금 자기 코를 쥐거나 발가락 또는 생식기를 더듬는다. 아이는 대걸레를 무서워한다. 아이는 대걸레가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는 눈을 꼭 감아보지만 대걸레 두 자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으며,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문은 언제나 잠겨 있고, 가끔씩(아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못한다) 문이 요란스레 흔들리다 열리고 한 명 또는 몇 명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 가운데는 아이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 다가와 발로 차는 이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며 놀랍고 메스꺼운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밥그릇과 물그릇을 서둘러 채워준 뒤 문은 다시 굳게 잠기고 들여다보던 눈들도 사라진다. 문간의 사람들은 결코 입을 여는 법이 없지만, 태어나면 서부터 그 지하실에서 갇혀 살지는 않았던 그 아이는 밝은 햇살과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으며, 이따금씩 말을 한다. “잘 할게요! 절 내보내주세요. 잘할게요!” 사람들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아이는 밤이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크게 소리 내어 울기도 했지만 지금은 단지 “으어어, 으어어” 하는 신음 소리만 낼 뿐이며 점차 말수가 줄어든다. 너무나 야윈 아이의 장딴지는 살이라곤 아예 없고, 배는 볼록 튀어나왔다. 아이는 옥수수 가루와 기름 반 그릇으로 하루를 연명한다. 아이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 자신의 배설물 위에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지는 짓무르고 붉은 상처로 가득하다.

오멜라스의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직접 와서 본 사람도 있고, 단지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

만 아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아이가 그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들의 행복, 이 도시의 아름다움,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정, 아이들의 건강, 학자들의 지혜로움, 장인의 기술, 그리고 심지어는 풍성한 수확과 온화한 날씨조차도 전적으로 그 아이의 지독하리만치 비참한 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다.

오멜라스의 아이들은 여덟 살에서 열두 살 사이에, 상황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된다. 지하실의 아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젊은이들이지만, 때로는 나이 든 어른이 오기도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려고 오는 이들도 꽤 있다. 아무리 설명을 그럴듯하게 들었다 해도 그 광경을 본 젊은 구경꾼들은 언제나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한다. 자신들이 그 아이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것에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동안 전해 들었던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직접 본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노를 느끼며, 무력감에 빠져든다. 그 비참한 아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아이를 그 지독한 곳에서 밝은 햇살이 비치는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다면,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잘 먹이고 편안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리라.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한다면, 당장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껏 오멜라스 사람들이 누려왔던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말게 된다. 그것이 바로 계약인 것이다.

단 한 가지 사소한 개선을 위해 오멜라스에 사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멋지고 고상한 삶을 맞바꾸어야만 한다는 것, 한 사람이 행복해질 기회를 얻기 위해 수천 명의 행복을 내던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하실 골방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방지하게 만드는 이유다.

계약은 엄격하며 절대적이다. 그 아이에게는 친절할 말 한 마디조차 건네면 안 된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끔찍한 모순에 직면한 뒤, 눈물을 흘리거나 또 눈물도 나지 않을 만큼 격분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이들도 종종 있다. 그러고는 몇 주일 혹은 몇 년씩 그 아이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들은 설령 그 아이를 풀어줄 수 있다 해도 그것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약간 더 따뜻해지고, 약간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상태가 그리 많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에는 아이가 너무 퇴보해 있고 우둔해진 것이다. 더욱이 그 아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너무도 황량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우에 제대로 반응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사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해 주고 있는 벽과, 아이의 눈에 익숙해진 어둠과, 깔고 앉은 자신의 배설물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더욱 비참하다고 느낄 것이다. 아이를 향한 부당한 행위에 가슴 아파하면서 흘리던 눈물은 현

실의 끔찍한 정의를 알아차리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메말라간다. 하지만 오멜라스 사람들의 눈물, 분노, 자비를 베풀려는 시도 그리고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오멜라스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근원 이리라. 오멜라스 사람들에게 김 빠지고 무책임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오멜라스 사람들은 아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고상하게 지은 건축물, 심금을 울리는 음악, 심오한 과학기술을 누릴 수 있으려면 지하실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있어야 하며, 오멜라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오멜라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그토록 자애롭게 대하는 것도 바로 지하실의 아이 때문이다. 그 아이가 어둠 속에서 코를 훌쩍이며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면 사랑스러운 말에 올라 탄 젊은 기수들이 여름날 첫 아침 햇살을 받으며 경주를 벌이며 줄지어 서 있을 때 피리를 불던 아이는 더 이상 즐거운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멜라스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여러분은 오멜라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믿어지는가? 이제 좀 더 납득이 가는가? 그러나 아직도 할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다. 이 이야기야말로 진정 믿기 어려운 일 이리라.

지하실의 아이를 본 청소년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에 차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사실, 아예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좀 더 나이 든 남자나 여자들도 하루나 이틀 정도 침묵에 잠겨 있다가 집을 떠난다. 그런 사람들

은 길로 나서서 곧장 혼자 걸어간다. 이들은 한참을 걸어 오멜라스의 아름다운 관문을 통과해 도시 밖으로 곧장 빠져나간다. 이들은 오멜라스의 농장들을 가로질러 계속 걸어간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모두 혼자서 간다. 밤이 찾아오면 이런 여행객은 마을의 길을 따라, 창문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는 집들 사이를 지나 들판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혼자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산으로 향한다. 그들은 계속 걸어간다. 그들은 오멜라스를 떠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이 가는 곳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 행복한 도시에 대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다. 나는 그곳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다. 그런 곳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알고 있는 듯하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